

아소 신사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신사

아소 신사는 기원전 282 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의 아소 신사는 2 개의 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데라 바닥에 펼쳐진 아소시에 위치한 하궁(아래 신사)과 아소산 꼭대기, 분화구에서 백수십 미터 남짓 아래에 위치한 상궁(위 신사)이 있습니다. 상궁의 정식 명칭은 문자 그대로 '아소산 위에 있는 신사'라는 뜻의 '아소산조 신사(阿蘇山上神社)'입니다. 상궁과 하궁 둘 다 아소산의 분화구를 신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궁에는 1830 년대부터 1840 년대에 걸쳐 지어진 보존상태가 양호한 건물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 몇몇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궁은 하궁이 지어지고 나서 조금 후인 19 세기 말경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의 상궁은 1958 년에 지어진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로 된 소박한 한 채짜리 건물입니다.

화산신앙의 목적은 화산의 신들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만족스러운 기분일 동안은 화산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분화합니다. 비록 소규모라 하더라도 화산의 분화는 농작물이나 가축, 인간의 주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아소산의 화산신앙에 대한 최초 기록은 중국 수 왕조의 정사, 중국 수나라 역사서 『수서(隋書)』(636 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아소산이 신성한 것으로 인식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8, 9 세기에 쓰여진 일본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천황이 사는 수도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신사가 이처럼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아소의 화산의 움직임이 일본 전체의 운명을 예고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소 신사의 신관들은 화구 바닥에 고인 물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그 모든 변화를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그 변화가 흉조라고 판단될 경우에 조정에서는 아소산의 분화와 나라 전체의 재앙을 막기 위해 전국의 신사에 열심히 기도를 올리도록 명했습니다.